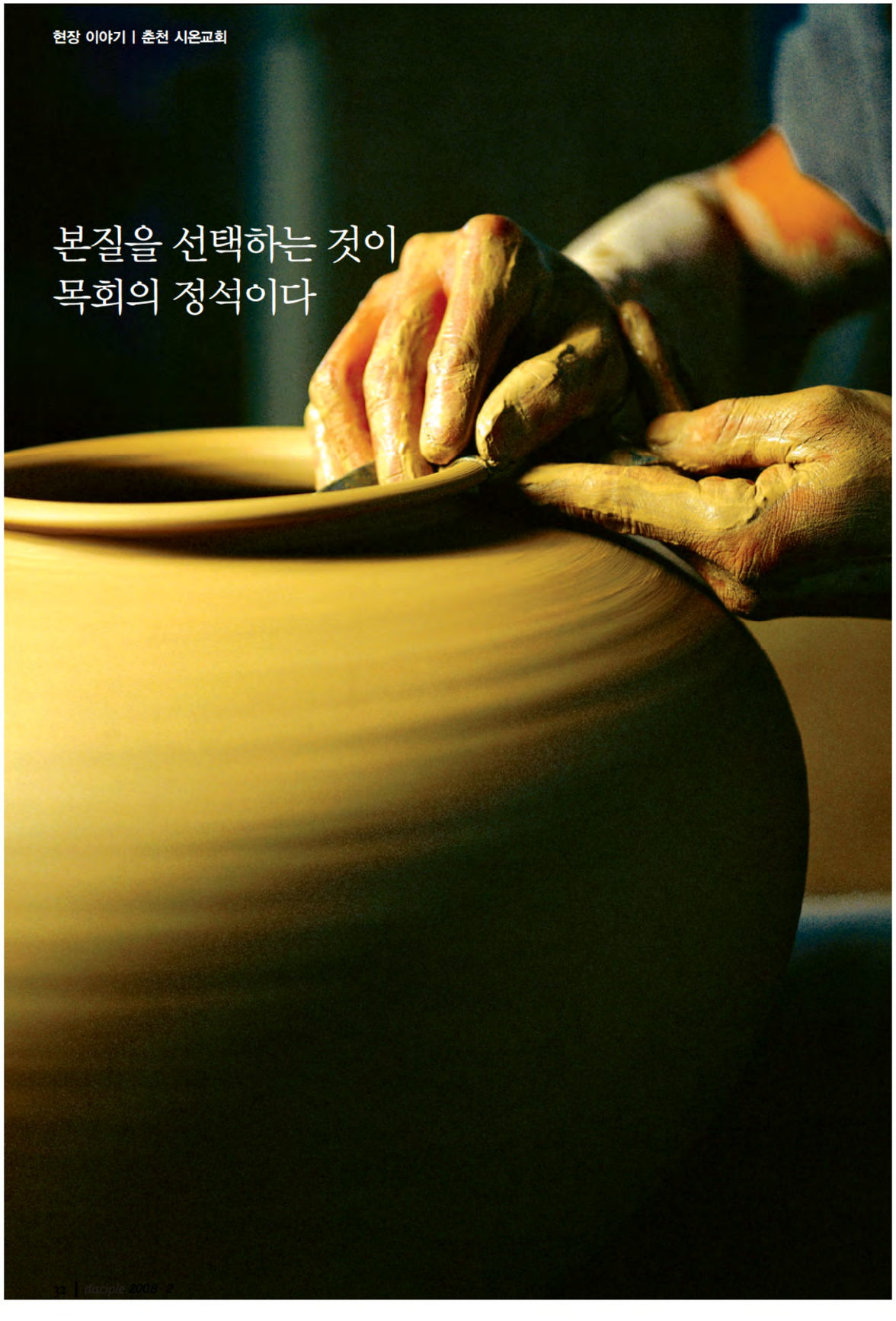

본질을 선택하는 것이 목회의 정석이다

오생락 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한 이후,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신학석사학위(Th.M.)를 받았다. 1991년 춘천 시온교회를 개척해 지금까지 제자훈련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집중하고 있다.

모두다 성장을 기대하지만 변화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함이 앞선다. 이것저것 따져보고 가능성을 저울질해 보고 천천히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시작한 이후에도 혹시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점검하고 돌아본다. 작은 문제점이라도 발견되면 심각해진다.

여건이나 상황의 문제인지 아니면 변화의 방향이나 목표 혹은 방법의 문제인지에 대해 따져보게 된다. 점검결과에 따라 중단 혹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방법을 바꾸어 재도전하기도 하고 좀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 전진하기도 한다.

전통 목회시스템을 제자훈련 목회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같은 원리가 작동된다. 제자훈련 목회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에서부터 처해있는 목회현장의 상황과 여건에 대한 고민이 늘 존재한다. 제자훈련 목회로의 전환과 관련해 자주 제기 되는 문제 중 하나가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디사이플〉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실제 목회현장에서 찾기로 결정하고, 제자훈련을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춘천시온교회를 찾았다. 시온교회는 오생락 목사가 1991년 7월에 개척해 16년 동안 사역하고 있다.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춘천시 효자2동 608-21, 19평도 채 안 되는 작은 건물 2층. 이곳이 춘천 시온교회의 첫 출발점이다. 서울 시온교회가 마련해준 보증금 2,000만 원으로 임대한 작은 장소였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맨 뒷자리까지 침이 튈 정도로 좁고 작은 공간이었다.

낯선 땅 춘천의 풍경은 대도시의 것과는 차이가 컸다. 낮은 건물과 좁은 도로.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오 목사는 거듭 "이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사역지야"라는 말을 자신을 세뇌시키듯 계속 속으로 되뇌어 보았다. 하지만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다.

준비도 계획도 부족한 상황에서 시작된 교회 개척이었다. 그런데 대학교 근처라는 장점 때문이었는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나둘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개척 1년 만에 60평 건물로 이사할 수 있었다. 장족의 발전이었다. 춘천처럼 인구 변화가 거의 없는 지역에서 거둔 결과임을 생각하면 큰 열매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보증금이었다. 6,000만원이나 되는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오 목사는 어머님과 형님들이 마련해 준 사택 전세금을 뺐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은행 대출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는 교회가 새롭게 자리한 건물 1층 단칸방으로 이사했다. 부엌도 화장실도 없는 곳이었다. 스스로 선택한 어려운 환경, 하지만 교회 부흥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었다. 또한 교회가 계속 부흥할 것이라는 기대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개척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큰 걸림돌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가정이 내적인 갈등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몇몇 가정이 서울과 원주로 이사한 것이다. 교회 존립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 더구나 건물주는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음을 근거로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안팎으로 시련이 찾아왔다.

결국 다시 교회를 이전해야 했다. 춘천의 외곽지역, 버스도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곳으로 이사해야만 했다. 1층과 2층은 주류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허름한 건물의 3층, 그곳이 시온교회가 새롭게 둥지를 튼 곳이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곳까지 함께한 30여 명의 교우들이 있었다. 그냥 그렇게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개척 교회 목회자 대부분이 그러하듯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등 모든 모임마다 직접 차량을 운행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전도했다. 하지만 교회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외곽지역에 있는 작은 개척 교회를 일부러 찾아올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이다.

위기와 함께 찾아온 침체 그리고 모험

이즈음 오 목사는 점점 지쳐갔다. 패배주의에 빠져들 정도였다. 무력증에 대인기피증까지 생겼고, 기도할 힘조차 없었다. 오 목사는 그때, 지쳐있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라' 고 하는 말이 얼마나 공허한 말인지 뼛속 깊이 깨달았다고 한다. 기도하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그가 기도할 수 있도록 곁에서 조용히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옳은 모습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다.

목회가 힘들어지고 스트레스가 쌓여가면서 오 목사는 테니스에 빠졌다. 목회로 인한 절망감이 엄습해 올 때마다 테니스 코트를 찾았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테니스에 너무 몰두하는 오 목사를 염려하고 걱정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당시 오 목사에게 테니스는 힘든 하루하루 견디고 버티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목회 전선에서의 어려움을 오직 믿음과 기도로 이겨내는 분들에 비하면 내가 너무나 영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가끔은 운동이나 취미생활도 목회자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테니스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염려의 대상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묵묵히 지켜보며 기다려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의 아내였습니다. 지금도 돌아보면 아내에게는 미안한 마음과 더불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전혀 얻는 것이 없었던 시간은 아니었다. 당시 오 목사에게 테니스를 가르쳤던 코치는 전혀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 목사와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지금은 시온교회의 안수집사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있다. 여하튼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었다. 3년이란 결코 짧지 않는 시간이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처럼 이어졌다.

이렇게 고통과 시련의 세월을 보내던 어느 날, 오 목사는 문득 처음으로 '모험' 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다.

"그래,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예배당을 옮겨보도록 하자."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렸다. 당시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석사동으로 이사를 했다.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40만 원, IMF의 파고를 견디지 못해 가압류되었던 건물이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월세가 많은 것도, 가압류된 건물이 경매 처분된다 해도, 많은 월세로 인해 생활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을 감수할 만큼 예배당을 옮기는 것이 절박했다.

벼랑 끝에서의 선택 그리고 도약

석사동으로 이사한 후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요찬양모임, 테니스 무료레슨, 스텐실 무료강습,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영어 교실, 글짓기 교실 등을 실시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금씩 교회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었다. 교회는 점점 부흥하기 시작했다. 경매 직전까지 갔던 건물도 잘 해결되었다. 하지만 건물의 가압류 문제가 해결되자 건물주는 1억 3천만 원의 전세금을 요구했다. 또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오 목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교우들과 함께 기도한 후 직원회를 개최했다.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결정해야만 했다. 첫째는 건물주의 요구대로 1억 3천만 원의 전세금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고, 둘째는 형편에 맞는 다른 건물로 이사하는 것이며, 셋째는 땅을 사서 교회당을 짓는 것이었다. 당일 직원회에서는 모든 직원들의 동의로 교회당을 건축하기로 결정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건축을 결정하고 난후,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땅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돈이 없어 계약을 할 수도 없는 상태였지만 오 목사는 아침, 저녁으로 그곳에 가서 기도했다. 뿐만 아니라 주일예배, 수요예배, 새벽기도 후에는 성도들과 함께 그 땅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다. 새벽 찬바람을 온 몸으로 맞으면서도, 펑펑 내리는 눈보라 속에서도, 주룩주룩 쏟아지는 소낙비 속에서도 기도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건축은커녕 땅을 계약할 수 있는 계약금도 없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오 목사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무리한 방법을 통해 헌금을 하게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교우들,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며 진행해 나갔다.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법이다. 우선 150여 평의 땅을 구입, 예배당 1층을 건축할 수 있었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리고 입당한 지 2년, 새로 지은 예배당이 비좁을 정도로 부흥과 성장의 열매가 있었다. 2004년 사무총회에서 증축을 결의했다.

당시 대출금을 갚지 못한 상태였고, 물질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온 교우들이 함께 내린 결정이었다. 이후 교우들의 희생과 건축위원들의 헌신으로 연건평 400여 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2006년 1월 22일 입당 예배를 드렸다. 본당 증축 이후 시온교회는 꾸준하게 성장했다.

그러던 중 2007년 1월 시온교회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교단 100주년 기념 전도왕 선발'에 대한 공고문을 보고, 오 목사는 교단 100주년이라는 중대한 행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잠재력을 극대화 시키는 기회로 삼기로 결정한다.

그 날 이후 시온교회의 모든 행사는 전도 중심으로 바뀌었다. 교역자들이 먼저 관련 세미나에 참석, 전도에 대한 열정과 방법을 익히고 이후 약 90여 명의 교우들을 모집, 전도훈련을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예배와 주일예배를 통해 전도에 대한 열정을 배가시켜 나갔다.

이후 3월부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매 주일마다 거의 10~20명, 많을 때는 30여 명의 새가족이 등록했다. 교회는 새가족의 정착을 돕기 위해 바나바 사역을 도입했고, 기존의 새가족반을 강화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였다. 그렇게 부활주일까지 등록한 성도가 어린이를 포함하여 무려 157명이나 되었다. 매주 350여 명이던 출석교인도 450여 명으로 늘어났다. 교단 100주년 기념대회에서는 두 명의 시온교회 성도가 전도왕으로, 시온교회 역시 전도왕 교회로 선정되었다.

본질에 대한 확신이 가져다 준 역동성

위기와 침체 속에 있던 교회가 지속적인 부흥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간 동력이 무엇일까? 오 목사는 제자훈련을 통해 확고하게 깨달은 목회의 본질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한다.

오 목사가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이하, CAL세미나)'를 참석한 것은 2000년 3월이었다. 그는 CAL세미나 참석 이전에 옥한흠 목사의 『평신도를 깨운다』를 읽어서, 제자

준비도 계획도 부족한 상황에서 춘천 시온교회를 개척한 오생락 목사.
의욕적으로 시작한 개척 교회는 만성적인 재정문제와
핵심 교인들의 이탈이라는 위기를 맞았다.
오 목사 자신마저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정도였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교회 이전과 교인들의 단합으로
서서히 회복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훈련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역이 정체되어 이런저런 이유로 지쳐 있을 때는 세미나 참석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었다.

석사동으로 교회를 이전하고 1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목회에 대한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었다. '어떻게 하면 이 분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CAL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다.

CAL세미나를 통해 오 목사가 얻은 가장 큰 유익은 '목회가 무엇이다' 라는 명확한 개념을 확립할 수 있었던 점이다.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부수적인 것인지 알 수 있었다. 이전에는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쪽이었지만, CAL세미나 이후에는 우선순위에 집중하게 되었다. 교회가 지향하는 바도 확실해졌다.

이후 다른 주제의 세미나 혹은 교육을 받을 때에도 분명한 기준에서 적용할 수 있었다.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더 배워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다. 기준과 방향이 명확해지고 나니 모든 부분에서 가속도가 붙었다. 기준과 방향이 명확히 세워지기 이전에는 성도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지엽적이고 단편적이었다면, 기준과 방향이 명확해진 이후에는 교육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화되었다.

예를 들어 성경공부의 경우, 성경공부 자체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제자훈련과의 관련 속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그 중요성과 가치가 명확히 드러나고 강조되었다. 제자훈련이 교회 내부에 정착되면서 교회 내에서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기준 역시 명확해졌다. 성도들도 목회자 자신도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부분이 많았다.

3월 CAL세미나 참석 이후 곧바로 5월에 제자훈련 1기를 시작했다. CAL세미나가 주는 도전이 컸고, 당시 교회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 수 있었다. 사실 더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열망이 컸다.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미루지 않고 바로 시작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제자훈련을 제대로 받을 만한 형편에 있는 이들이 없었다. 1기생 6명 중 4명이 유치원에도 보낼 수 없을 정도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매주 훈련이 있는 날이면 훈련생과 어린아이들을 마중 나가야 했다. 교회로 찾아오는 훈련생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훈련생을 찾아나선 것이다. 어린아이들을 근처 놀이방에 맡기는 것으로 그날 훈련을 시작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기 이전에 성경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성경공부를 통해서 받는 은혜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변화되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훈련이란 과정은 절대적입니다. 제자훈련이 목회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여러 사역들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은 목회의 핵심입니다. 핵심이 제대로 세워져야 다른 사역들도 제대로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훈련 사역이 제대로 세워져야 다른 사역들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는 사람들을 훈련시킨 것이 아니기에, 훈련생들을 데려오고 데려다 주는 등 여러 힘든 면이 있었다. 하지만 제자훈련이라는 목회의 본질적 사역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자부심으로 다가왔다. 일단 다른 사역들은 모두 내려놓기로 했다.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자훈련이란 틀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제자훈련이 정착된 이후에 조금씩 보완해 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1기가 끝났지만 이내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켜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제자훈련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제자훈련 이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이고 결과물입니다. 6명을 데리고 1년 동안 훈련하는 것으로 교회가 성장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훈련의 틀을 잘 세워두면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체계와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오 목사는 제자훈련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혹 지금과 같은 외적 성장이 있었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역동성과 응집력은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오 목사는 제자훈련을 통해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이해를 갖는다고 강조한다. 굳이 이해를 구하지 않아도 성도 스스로 동역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가까이, 명확히, 자세히 깨닫게 되다

제자훈련을 통해 교회와 성도가 받는 은혜가 많지만 목회자가 받는 은혜도 많다. 오 목사는 제자훈련을 통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제자훈련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홀로 돌아보는 수준이었다면, 제자훈련을 시작하고서는 훈련 과정 속에서 성도들과 나눔을 가지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를 얻었다.

성도에 대한 이해도 달라졌다. 멀리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속깊은 삶의 내면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설교하고 심방만 한다면 멀리서 피상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성도의 삶을, 제자훈련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이다.

자신과 성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자 목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나 자세도 달라졌다. 목회가 어렵고 힘들 때는 테니스가 버팀목이었다. 그러나 제자훈련 목회를 하면서부터 테니스가 그렇게 재미있지 않았다. 지금도 테니스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테니스에 대한 갈증이 있지는 않다. 목회가 잘 되지 않을 때는 테니스의 비중이 컸지만 목회가 재미있어지면서는 테니스의 비중이 작아졌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그 상황이나 환경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목회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오 목사는 목회자가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통해 성도들이 교회와 세상,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배우게 된다고 강조한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을 때는 해답도 함께 주십니다.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은 힘이 들지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교회는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해도 주저앉으면 위기가 기회가 되지 못하고 위기에서 끝이 나고 맙니다."

교회와 사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다

그렇다면, 시온교회 제자훈련을 직접 경험한 성도들은 제자훈련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2001년 1기로 훈련을 받았던 이영미A 집사는 당시 3살이었던 막내를 양육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던 제자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제자훈련 기간 동안 받은 가장 큰 도전은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내려놓지 않고는 예습도 숙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안달복달을 내려놓고 나니 참 평안했습니다. 평소에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무엇을 느꼈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쓰기 위해 고민하다 보면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밤새 울었습니다. 그렇게 눈물 흘렸던 밤들이 변화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 속에만 있던 개인적 기준들, 자신과

시온교회가 회복의 길로 가는데는
석사동으로 교회이전을 한후 CAL세미나에 참여하면서부터이다.
CAL세미나에 참여한 오 목사는 제자훈련이 목회의 핵심임을 깨닫게 되었고,
1기 제자훈련을 곧바로 시작했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둔 훈련생이 많아,
오 목사는 직접 훈련생들을 차로 데리러 다니며 훈련해야 했다.
1기 수료이후 급격한 변화는 없었지만,
성도들이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됐다.

타인에 대해 적용하던 시선에 교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집사는 믿음의 실천 부분에 있어서도 훈련을 통해 큰 변화를 체험했다.

"믿음과 삶의 중요한 것들에 대한 관점도 변화되는 기회였습니다. 예를 들어 제자훈련 이전에도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늘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에서는 냉수를 주어라, 눈높이를 맞춰라 등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가르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006년 7기생으로 제자훈련을 받은 이영미B 집사는, 먼저 제자훈련을 받은 선배들의 모습에 도전을 받아 제자훈련을 받았다. 주목 받는 위치에 서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섬기는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모습에 도전을 받은 것이다. 이 집사는 제자훈련을 통해 받은 유익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훈련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도 큰 은혜였지만, 담임목회자를 이해하고 교제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목회자와의 거리가 줄어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훈련을 받기 이전에는 멀리서 존경하는 목사님이었지만, 훈련 이후에는 가까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집사는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관점도 확연하게 전환됐다고 한다.

"제자훈련은 신앙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기본을 확실하게 만드는 기회였습니다. 멀리 있는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으로 느끼고 인식하는 기회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시지만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고 대화를 나누셨던 평범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기준과 관점도 변했습니다. 함께 훈련을 받았던 7명은 성격도 환경도 나이도 직업도 달랐습니다.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졌습니다. 훈련 이전에는 '코드가 맞는 사람',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 이란 식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하면서 친하다는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자주 만나고 어울리고 이야기하고 해야 친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는 부분이 적어도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친한 관계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3월 시온교회에 새가족으로 출석했다가 지금은 새가족 부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미숙 집사는 제자훈련의 유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마흔을 넘긴 나이에 배운다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교재를 통해 주제를 다루는 시간뿐 아니라, 기초적인 신앙생활의 체크를 통해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갈 수 있었습니다. 간혹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하느냐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열정은 시온교회에서는 평균적인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열정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제자훈련을 받고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서는 쉽게 찾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제자훈련은 내재되어 있던 열정을 밖으로 꺼내어 놓게 하는 기회였습니다. 제자훈련이 없었다면 그 열정은 그냥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왼쪽부터
이영미B · 이영미A · 이미숙
김주철 · 조성봉 · 황성모 집사

오 목사와 함께 제자훈련을 받은
이 교회 평신도들은 제자훈련이 자신의 삶과
가정,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자랑한다.
그리고 지금은 신앙의 눈을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신앙생활하는 기쁨에 젖어 있다.
이 교회 평신도들은 제자훈련을 통해
교회와 사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다.

8년 전부터 시온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김주철 안수집사는 제자훈련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다음은 제자훈련에 대한 김 집사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30년 이상 교회를 다녔지만 첫 믿음의 상태에서 더 이상의 성장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제자훈련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는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와 같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새롭게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훈련을 받기 이전에는 믿음과 실제 생활은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상생활과 직장생활도 신앙생활의 연장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의 작은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절제하자. 예수님의 제자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유혹은 늘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대한 흔들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 집사는 훈련을 통해 자녀에 대한 생각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고 고백한다.

"'내 자식' 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부장적인 태도가 컸습니다.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행동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섭섭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내 자식인데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마치 지금 당장 자녀를 멀리 떠나보내는 심정이었습니다. 내 아들이고 딸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독립하시는 인격체라는 깨달음 이후, 자녀 앞에서의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라진 행동은 곧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삶의 질을 위해서도 투자를 하는데, 믿음을 위해서 당연히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진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만으로는 신앙의 성숙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을 통해서만 성숙과 성장이 있습니다."

13년 전, 스물다섯이 되던 해에 오 목사를 만나 예수님을 영접한 황성모 안수집사. 테니스 코트에서 코치로 훈련생으로 만난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황 집사에게 제자훈련은 어떤 의미일까?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레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 10시부터 2~3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서 남 몰래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꼭 제자훈련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어렵게 믿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삶의 절제를 배웠습니다. 훈련을 받기 이전에는 새벽까지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았는데 훈련 이후에는 없어졌습니다."

황 집사는 절제 외에도 자신의 내면에 커다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테니스 코트에서는 늘 자신 있는 모습이었지만, 코트 밖에서는 늘 소극적이고 자신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늘 자신을 밖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통해 이런 부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변화되었고, 의사를 표현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레슨을 할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 전에는 신앙인임을 보이는 데 소극적이었습니다. 훈련 이후에는 황 코치는 예수쟁이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2005년부터 출석, 현재 2007년부터 시작된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 조성봉 집사는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가치관의

변화와 신앙의 성숙이라는 부분에 큰 변화를 경험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대학생이었던 스물여섯이 되어서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계산해 보면 17년 동안 그냥 교회만 다닌 셈이었습니다. 그때의 훈련은 나의 본질을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그때의 훈련에 비해 지금의 제자훈련은 가치관까지 변화시키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4명이 함께 훈련을 받고 있는데, 각자의 가치관까지 내어놓고 토의하고 결론을 내어가는 과정을 통해 저의 가치관을 교정해 가고 있습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다'라는 이원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앙은 삶과 인격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동기부여를 받고 있습니다. 성숙에 대한 결단을 순간순간 하게 됩니다."

또한 조 집사는 생활숙제 과제물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다고 한다.

"특별과제들을 통해 받는 도전이 큽니다. 자녀의 장점 써오기, 아내의 장점 써오기 등을 통해 가족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었습니다. 훈련 받기 이전에는 아내에 대해 불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별과제를 수행하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나니 정말 가치 있는 사람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정은 최초의 교회이자 교회 공동체보다 더 중요한 공동체임을 거듭 배우면서 시각이 교정되고 행동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가르침 때문에 결코 교회에 대한 섬김이 가벼워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전에는 의무감에서 교회를 섬겼다면 지금은 무한한 자유함 속에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내려놓다

지금 시온교회에서 제자훈련이 갖는 비중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가 있다. 개척 때부터 함께한 올해 예순아홉이 되신 권사님이 계시다. 몇 해 전에 제자훈련 신청했다가 포기한 적이 있다. 굳이 힘들게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해서였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성장반을 신청해서 현재까지 훈련을 받고 있다. 이제는 힘들게 훈련받지 않아도 된다고 편하게 다니셔도 된다고 이야기해도 제자훈련까지 받고 싶어서 성장반 교육을 받는다고 대답한다.

현재 69세, 68세 두 분이 성장반에서 교육 받으면서 제자훈련 준비를 하고 있다. 쓰고 외우고 배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 피하던 분들이 이제는 꼭 훈련을 받아야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오 목사는 제자훈련이 교회와 평신도들에게 일으킨 변화와 가능성을 보면서 불가능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어떤 것이든지 교회에 정착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척할 정도의 정신 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제자훈련을 교회에 정착하는 과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행기나 우주선이 이륙할 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만 이륙 후에는 적은 에너지로도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것처럼 제자훈련이 정착되고, 분위기가 잡히면 제자훈련반을 더 개설해 달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를 수 있다. 꼭 하나의 방법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제자훈련은 포기할 수 없는 목회의 본질이다.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은 상황이나 여건을 핑계로 미룰 수 있는 사역이 아니다. 오 목사는 시온교회를 공개하면서 아직 과정 속에 있지만 시온교회를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동역자와 교회가 작은 희망을 품게 되길 기대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모두 든든하게 세워져가길 기대한다.

〈김건주 목사〉

구체적인 방법은 다를 수 있다.
꼭 하나의 방법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제자훈련은 포기할 수 없는 목회의 본질이다.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은
상황이나 여건을 핑계로 미룰 수 있는 사역이 아니다.
오 목사는 시온교회를 공개하면서 아직 과정 속에 있지만 시온교회를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동역자와 교회가 작은 희망을 품게 되길 기대했다.